

능산리 고분을 비롯한 능산리사지,
나성 등이 함께 아우러져 있었던 백제왕릉원 전경.
왼쪽 넓은 터가 능산리사지 터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고분이 능산리 고분군이다.

백제의 숨결이 잠든 마지막 왕도 부여

능산리 고분군

무덤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해주려는 무언의 메시지가 남겨져있는 장소다. 무덤에서 나온 역사적 유물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주변국 정세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분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글·사진 박영민 기자 항공촬영 허준 기자



부여 신암리 고분 실물 모습. 능산리 고분군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이전해 온 것이다.



부여 박물관 로비에 전시돼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 동하총(1호분) 서쪽 벽면에 새겨진 백호도 복제품.



능산리 고분 7기의 위치를 표기해 놓은 표지.



능산리사지 터에서 발견된 백제 사비시대의 연꽃무늬 수막새. 고구려나 신라의 수막새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양감을 지니고 있다.

능산리 고분은 충청남도 부여군의 동쪽에 있는 고분군이다. 3개의 무덤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비 시대의 백제왕릉원으로 알려져 있다. 총 7기의 왕릉급 고분과 동쪽에 5기, 서쪽에 몇 기의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 남아있다.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모두 도굴당해 소수의 금제, 금동제 유물만이 수습됐었다.

부여 인근에는 백제 무덤 수백 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형체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마저도 도굴돼 온전한 것이 많지 않다. 다행히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덤이 비교적 잘 보존돼있는 편이다. 물론 내부는 모두 도굴당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부여 시대의 왕릉



매표소를 지나 오른쪽 능선으로 5분쯤 걸어 올라가면 왼쪽 언덕배기에 무덤 7개가 나타난다. 이곳의 무덤은 오래전부터 왕릉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익산시 쌍릉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무왕과 선화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비 시대 백제왕들이 이곳에 묻혔다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공주 무령왕릉의 지석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무덤의 시대별 양식 변화나 출토품의 양상을 연구한 결과 성왕, 위덕왕, 혜왕, 법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군이 위치한 자리는 이른바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점지된 전형적인 묘지로서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 뒷산을 주산으로 하고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앞산인 염창리 산을 남쪽의 주작으로 삼았고, 묘지의 전방 200m 거리에 왕포천이 흐르는 남향의 왕실 공동묘지이다. 이로 인해 백제 당시에 이미 풍수지리 사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왕족들의 예술혼이 담긴 무덤



일제 강점기 1915년과 1917년에 걸쳐 1~6호 무덤이

조사돼 내부 구조가 자세히 밝혀졌고, 7호 무덤은 1971년 보수공사 때 발견됐다. 능산리 고분은 앞뒤 2줄로 3기씩 있고 뒤쪽 제일 높은 곳에 1기가 더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겉모습은 모두 원형봉토분이고, 내부는 널 길이 붙은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으로 뚜껑돌 아래로는 모두 지하에 만들었다.

이미 도굴된 바가 있는 능산리 고분에서는 두개골 파편, 도철목관편, 금동투조식금구, 금동화형좌금구 등 약간의 유물만 발굴됐다. 무덤들 서쪽에 있는 능산리사지 터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됐고, 또 이 지점이 절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능산리 고분군이 왕실 무덤 지역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능산리 고분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2호 무덤(중하총)은 백제 중흥을 꿈꾸던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석실분인 성왕의 무덤에서 관을 안치해 두는 현실의 구조는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능산리사지 터에서 발견된 사리감의 형태와 같은 것이다.

즉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성왕의 시신은 원찰의 목탑 안에 있던 사리감과 똑같이 아치형으로 된 현실 안에 안치된 것이다. 그것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의 발현이었다. 현실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바로 왕인 동시에 부처였다.

국제적 감각이 살아 있는 왕들의 무덤



능산리 고분군은 내부구조와 재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호 무덤(동하총)은 네모형의 널방과 널 길로 이루어진 단실 무덤이다. 널 길은 비교적 길고 밖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이고, 관을 안치하는 현실은 장방형으로 앞뒤가 길며 네 벽과 천장에 벽화가 있다. 벽과 천장에는 각각 사신도와 연꽃무늬, 그리고 구름무늬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2호 무덤(중하총)은 무령왕릉과 같이 천장이 터널식



능산리 고분 동하총(1호분) 모형의 내부 모습. 네 벽과 천장에는 각각 사신도와 연꽃무늬, 구름무늬 벽화가 그려져 있다.



능산리사지 터.



입구에서 능산리 고분으로 가는 능선 길.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태자 부여용의 가묘와 제단인 '의자왕단'.

으로 되어있다. 능산리 고분군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비성 천도를 단행한 성왕의 무덤이 분명하다. 능산리 고분 인근의 절터에서 출토된 창왕사리감 명문에 의해 성왕의 유택이 거의 분명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3호 무덤(서하총), 4호 무덤(서상총)은 천장을 반쯤 뉘어 비스듬히 만든 후 판석을 덮은 평사 천장이고 짧은 널 길로 가졌다. 이 형식은 부여지방에 많으며 최후까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7호 무덤(중상총)은 현실이 장방형이다. 백제가 망하면서 이 왕릉에도 피해가 있었던 듯 현실 석상 위에는 목관과 관 뚜껑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시체 머리 쪽에는 장신구로 인정되는 금동 관편이 나왔다. 목관 옆에서 머리 부분만 도금된 금동 못과 꽃 모양으로 된 크고 작은 도금 장식구 수십 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고분도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능산리 고분군은 대체로 6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무덤들이다. 이 시기는 사비(부여) 시대로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던 한성 시대와 중국 남조문화를 수입하던 공주 시대를 거쳐 외래문화를 백제의 것으로 승화, 절정의 백제문화를 꽃피우던 시기이다. 그래서 능산리 고분은 부여 시대 백제 예술과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

능산리 고분군에 자리한 의자왕단



능산리 고분군을 바라보면 왼쪽 작은 능선 위에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태자 부여용의 가묘인 의자왕단이 있다. 지난 2000년 부여에서 의자왕단을 만들었는데 그의 아들인 부여용의 가묘 역시 함께 조성하게 됐다. 의자왕이 이곳에 돌아와 다시 잠들기까지는 사연이 많았다. 백제 멸망 후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은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낙양성 북망산에 묻혔다고 전한다. 1920년 부여용 태자의 묘지석이 먼저 출토됐고, 1995년 부여군은 북망산에서 의자왕의 무덤을 찾고자 했다.



백제 왕국의 시조 온조왕을 비롯해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위패를 모신 사비백제대왕 송목전.



부여 능산리사지 터에서 출토된 계문작이 새겨진 항아리.



능산리사지 서쪽 공방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능산리 사지



부여 능산리 사지는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면서 조성한 왕실사찰의 절터로서 일명 '능사(陵寺)'로도 불린다.

2001년 9월 29일 사적 제434호로 지정됐다. 백제 위덕왕 14년(567)에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됐다가 660년 백제가 멸망하면서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된 일탑일금당식(一塔一金堂式)의 가람 배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역의 동·서·북쪽을 둘러싼 대배수로와 배수로를 건너는 목교와 석교가 확인돼 백제인의 우수한 건축 기술을 살필 수 있다.

또한 회랑에는 다른 절에서 보이지 않는 공방지가 있어 주목된다. 금당 서쪽 방에서는 온돌시설이 발견됐고 배수로에서 백제 시대 목간이 출토되었으며, 백제의 공예수준을 말해주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절이 세워진 연대를 알 수 있는 부여 능산리사지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됐다.

부여 능산리사지석조사리감에서는 이 절이 성왕의 위업을 기려 만든 것이라하여, 왕실에서 세운 사찰로서 왕릉으로 추정되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축원을 빌기 위한 사찰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진**

결국 낙양시 맹진현 봉황대촌 부근에서 의자왕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신, 목관의 흔적과 지석을 찾을 수 없었다.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듯이 의자왕의 묘는 오나라 마지막 황제인 손호와 진나라의 군주 진숙보 무덤 곁에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무덤에 도굴 갱이 뚫려있었다는 것에서 의자왕릉 역시 도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분명 기록에 비석을 세웠다는 점이나 부여용을 비롯해 부여태비, 흑치상지 등의 사례를 볼 때 묘지석이 출토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취재 협조 부여군청)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보살상으로 어깨 부분에 천의자락이 묘사돼 있을 분 불두는 결실된 상태다.



능산리 고분 출토유물인 금동제 관장식인 관구미개.



능산리고분 출토 유물인 금동방울.



부여 동나성 출토 유물인 그릇받침과 세발토기 굽다리 접시, 향아리.